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2. 14.(화) 12:00
배포일시	2021. 12. 14.(화)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담당자	과 장: 김수영(042-481-2250) 사 무 관: 이은정(042-481-2514)



통계청, 생애주기 변동 분석이 가능한 「인구동태 코호트 DB」 최초 제공

— 저출산, 청년, 고용 등 다양한 정책수립 지원 가능 —

-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출생코호트*별 생애주기 변동 분석이 가능한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금년 12월 말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출생 코호트: 동일한 시기에 출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인구 집단

-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통계청에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4종의 통계를 모두 생산하기 시작한 1983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출생기준으로 결합한 자료이다.
 - 따라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하는 생애 변화 패턴을 종단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 또한,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특정 코호트의 생애주기 변동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신규통계를 별도의 통계조사 없이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조사비용 및 국민의 응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아울러, 통계청은 1983~1993년생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최초로 제공하면서 1983년생과 1988년생을 중심으로 혼인, 출산 등 주요 특성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 류근관 통계청장은 “각각의 통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분석 및 다양한 행정자료와 융·복합할 수 있도록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최초로 서비스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 “저출산, 청년, 고용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증거 기반 자료로 크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붙임 1] 인구동태 코호트 DB 분석 결과(예시)

[붙임 2] 인구동태 코호트 DB 개요

일 러 두 기

- 동 자료는 금년 12월 말부터 제공 예정인 인구동태 코호트 DB*와 다른 행정통계** 자료를 연계하여 작성, 1983년생(2019년 기준 36세)과 1988년생(2019년 기준 31세)을 중심으로 인구동태 변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임.

* 동일한 출생년도 인구집단에 대해 혼인-자녀출산-이혼-사망 등의 특성을 연계한 자료

** 등록센서스(인구·가구·주택), 일자리행정통계, 주택소유통계 등

- 분석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하여 2019년 11월 1일 현재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1983년~1993년생 내국인

* 국내 출생신고 기준으로 국외 출생자, 귀화자 및 외국인은 제외됨

- 조사(행정) 목적별 다양하게 수집된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함에 따라 항목별 작성 시점, 작성 기준 등 각 통계별로 자료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혼인 및 이혼은 신고 기준으로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음

○ 혼인, 자녀 출산시 연령은 만 나이로, 혼인 및 출생통계의 실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출생신고 기준 연령과 다를 수 있음.

※ 활용 자료별 기준 시점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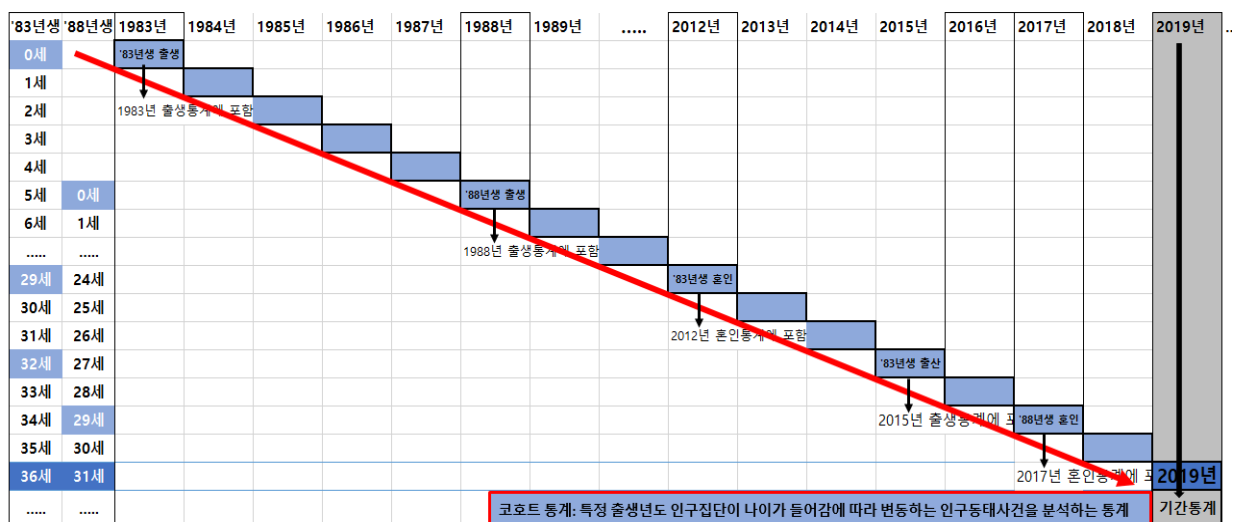
자료명	작성기준시점	관련항목	비고
인구동태 코호트 DB	1983.1.1. ~2019.12.31.	혼인	초혼기준
		이혼	초혼기준
		출생(자녀출산)	국내 출생신고 기준
		사망	2019.10.31.까지 반영
인구총조사 인구·가구· 주택DB	2019. 11. 1.	인구, 세대구성, 거처유형	
주택소유 통계DB	2019. 11. 1.	주택 소유 여부	
일자리 행정통계 DB	2019. 10.	경제활동 여부	무급 가족종사자, 농림어업 생산 활동경영인, 무등록사업체 및 4대보험 미가입자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음

일 러 두 기

□ 이용상 주의사항

- [붙임1]은 1983년~1993년생의 인구동태 분석 결과로서 2019년 기준 26~36세의 청년층으로 아직 혼인 및 자녀 출산 등 생애 사건 경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코호트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또한, 매년 공표되는 인구동태 기간 통계 결과와 상이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음에 유의

< 2019년 기준 인구동태 기간 통계와 1983년생의 코호트 통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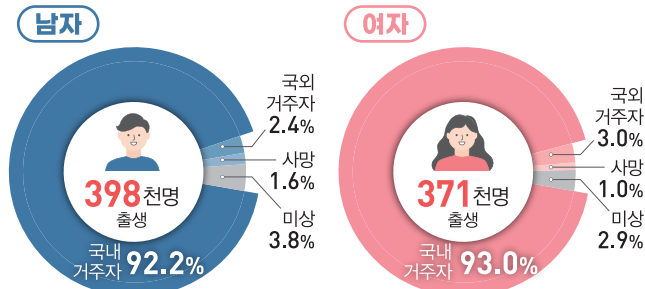
- (기간 통계) 2019년 기준 인구동태 기간 통계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발생(신고)한 사건(출생, 혼인, 이혼, 사망)에 대한 통계로, 그들의 출산, 혼인, 이혼, 사망 등의 특성을 각각 분석한 통계이고,
- (코호트 통계) 2019년 기준 인구동태 코호트 통계는 특정 출생년도(예:1983년생)의 인구 집단이 2019년까지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한 혼인, 이혼, 출산, 사망 등의 인구동태 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통계임.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983년생 남녀의 생애과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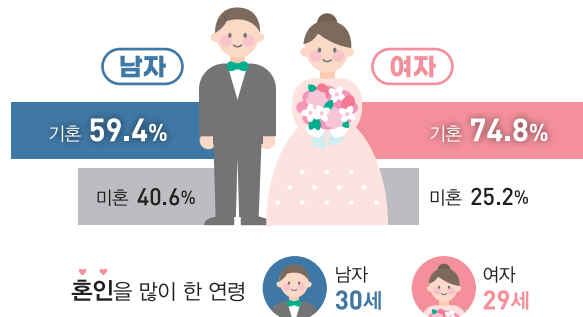


인구동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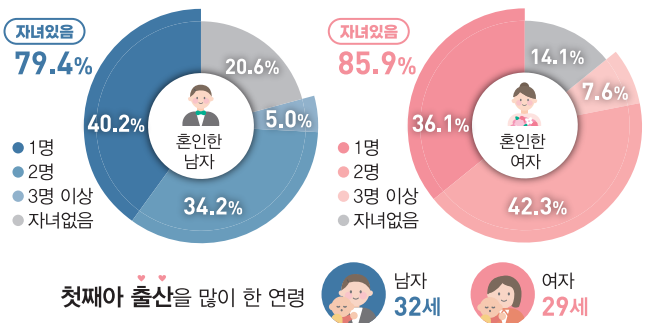
01 | 출생자 및 거주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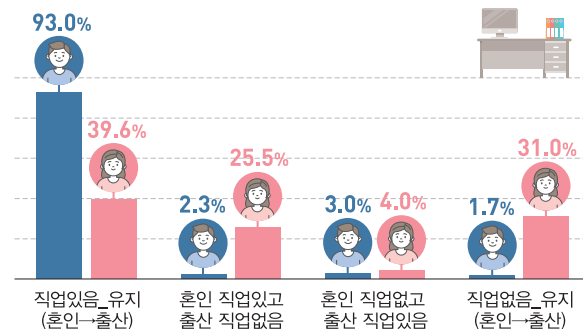
02 | 혼인 비중



03 | 자녀출산 및 출산아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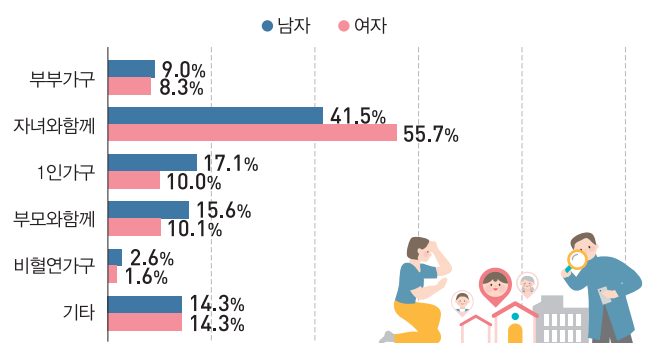


04 | 혼인 시 직업 및 출산 시 직업 변동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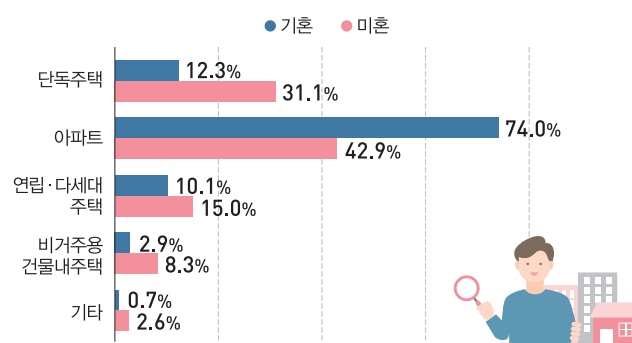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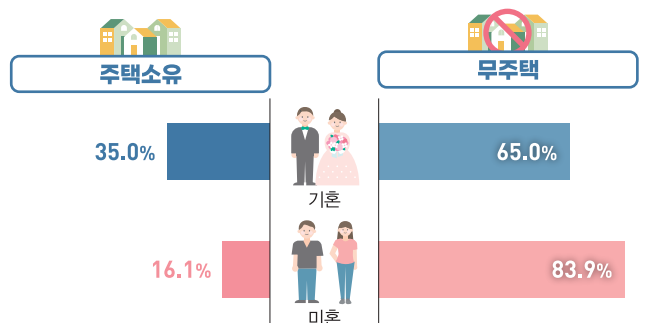
01 | 세대·가구 유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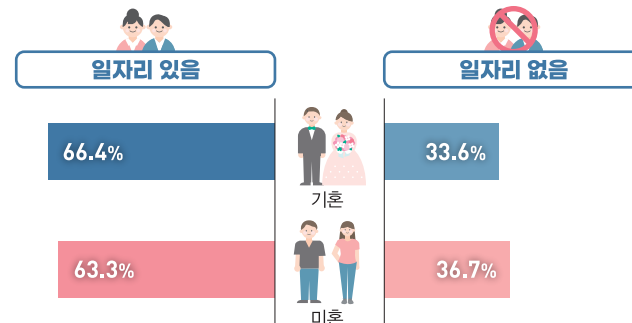
02 | 주거 비중



03 | 주택소유 비중



04 | 경제활동 비중



인구동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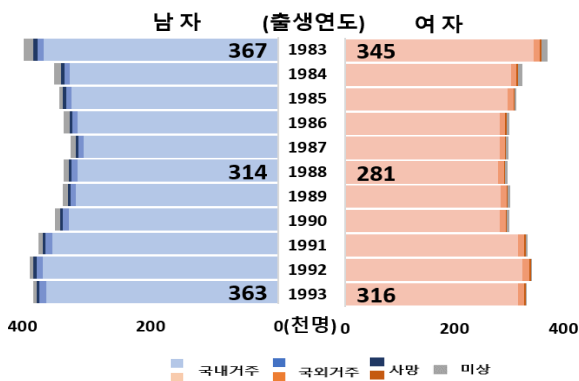
□ 1983년생, 1988년생 출생자 및 국내 거주자는 얼마나 되나?

○ 국내에서 출생*한 '83년생과 '88년생은 각각 76만 9천 명, 63만 3천 명임.

- 2019. 11. 1. 기준, 국내 거주자는 '83년생이 71만 2천 명(출생자의 92.6%), '88년생이 59만 5천 명(출생자의 94.0%)임.

* 국내 출생신고 기준으로 국외 출생자, 귀화자 및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음

< 출생 및 거주 현황('83~'93년생) >



< 출생 및 거주 현황('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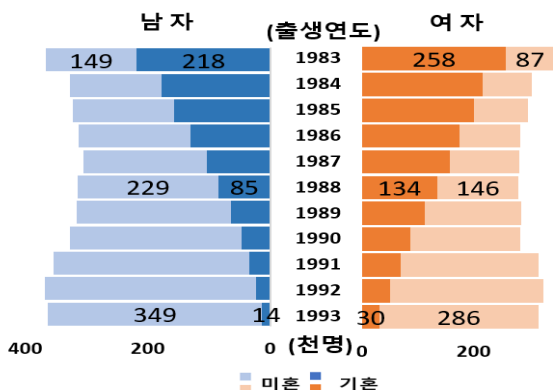
□ 이들 중 혼인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

○ '83년생은 국내 거주자(71만 2천 명) 중 66.9%가 혼인*을 하였고, '88년생 국내 거주자(59만 5천 명) 중 36.9%가 혼인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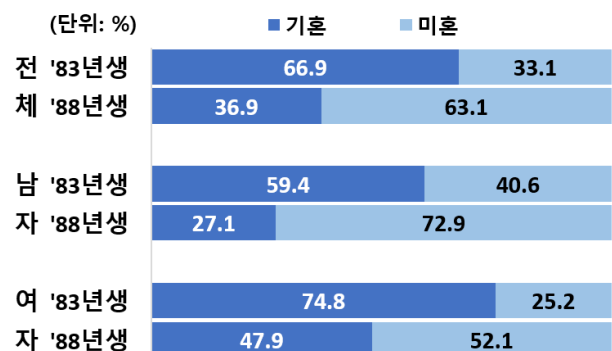
- '83년생은 남자의 59.4%, 여자의 74.8%가 혼인을 하였고, '88년생은 남자의 27.1%, 여자의 47.9%가 혼인을 하였음.

* 혼인신고 기준으로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음.

< 국내거주자의 혼인 여부('83~'93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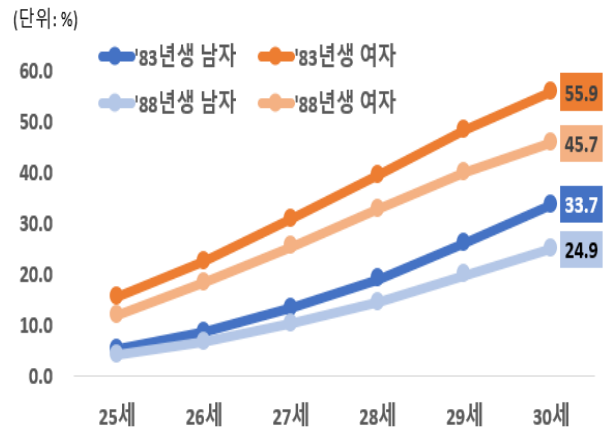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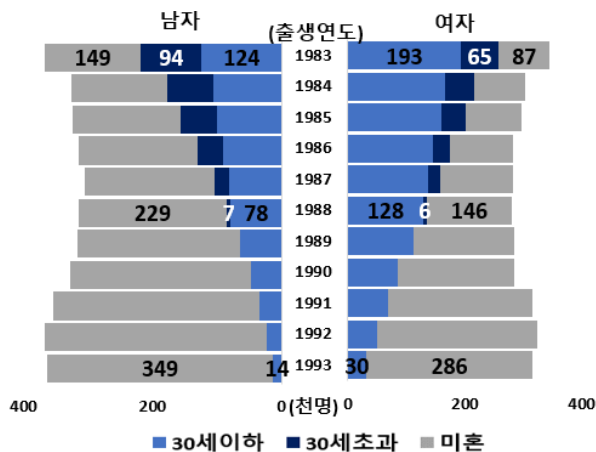
< 국내거주자의 혼인 여부('83년, '88년생) >



□ 혼인한 이들은 첫 혼인을 몇 세에 했을까?

- 혼인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83년생은 남자가 30세, 여자가 29세임.
- 30세까지 혼인한 비중은 '83년생은 남자가 33.7% 여자가 55.9%이며, '88년생은 남자가 24.9%, 여자가 45.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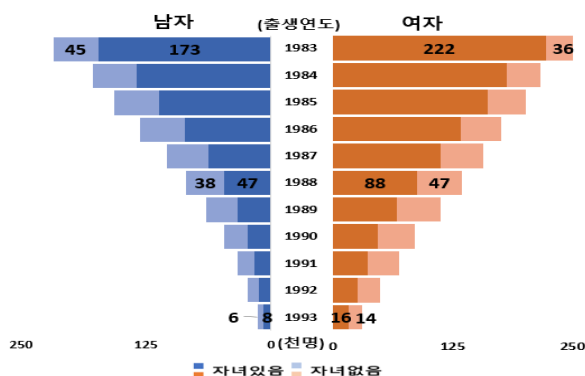
< 국내 거주자의 연령별 혼인 현황('83년~'93년생) > < 국내 거주자의 연령별 누적 혼인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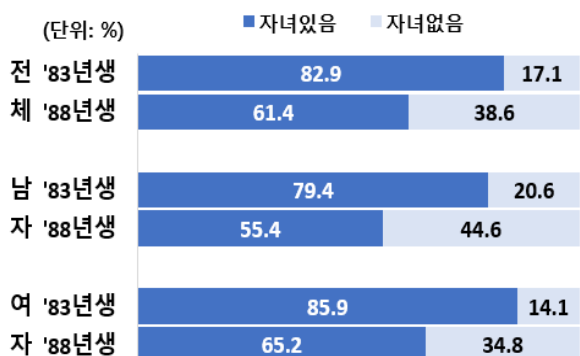
□ 혼인한 이들 중 자녀를 출산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 혼인한 '83년생(47만 6천 명) 중 82.9%는 자녀를 출산하였고, 혼인한 '88년생(21만 9천 명) 중 61.4%가 자녀를 출산하였음.
- 혼인한 '83년생 남자의 79.4%, 여자의 85.9%가 자녀를 출산하였고, 혼인한 '88년생 남자의 55.4%, 여자의 65.2%가 자녀를 출산함.

< 기혼자의 자녀 출산 현황('83~'93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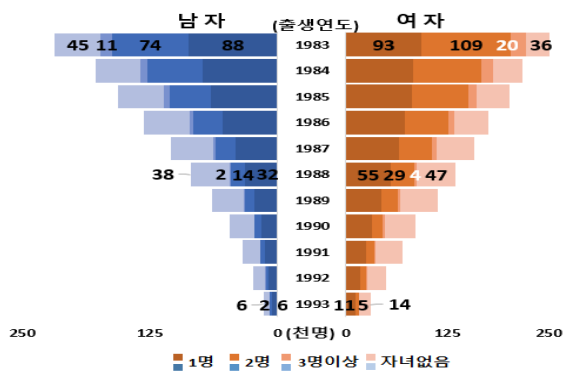
< 기혼자의 자녀 출산 비중('83년, '88년생) >



□ 혼인한 이들은 자녀를 몇 명 출산했을까?

- 혼인한 '83년생 중 자녀를 1명 출산한 비중은 38.0%, 2명 이상은 45.0%, '88년생은 자녀가 1명인 비중이 39.3%, 2명 이상인 비중은 22.1%임.
- 혼인한 사람 중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비중은 '83년생 남자가 39.2%, 여자가 49.9%이고, '88년생은 남자가 18.0%, 여자가 24.7%임.

< 기혼자의 출산 자녀수별 현황('83~'93년생) > < 기혼자의 출산 자녀수별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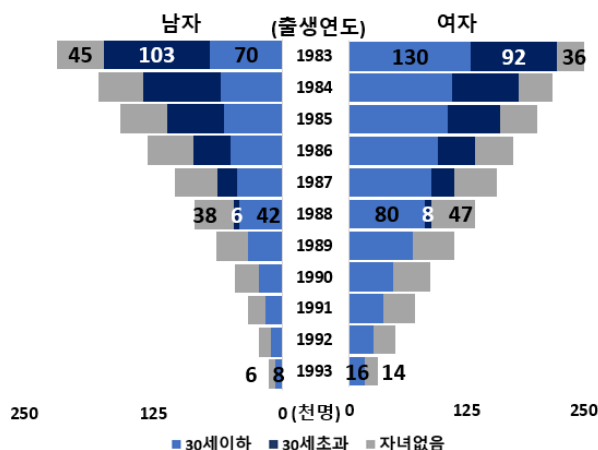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자녀 없음
전 '83년생	38.0	38.6	6.4	17.1
체 '88년생	39.3	19.5	2.6	38.6
남 '83년생	40.2	34.2	5.0	20.6
자 '88년생	37.4	16.0	2.0	44.6
여 '83년생	36.1	42.3	7.6	14.1
자 '88년생	40.5	21.7	3.0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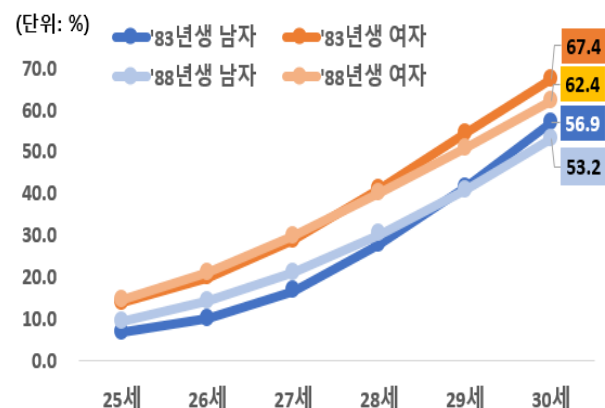
□ 혼인한 사람의 첫째아 출산 연령은 어떻게 되나?

- '83년생 혼인한 사람 중 첫째아 출산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남자가 32세, 여자 29세임.
- 30세까지 혼인한 사람 중 30세까지 첫째아를 출산한 비중은 '83년생은 남자가 56.9% 여자 67.4%이며, '88년생이 남자 53.2%, 여자 62.4%임.

< 기혼자의 첫째아 출산 연령별 현황 ('83년~'93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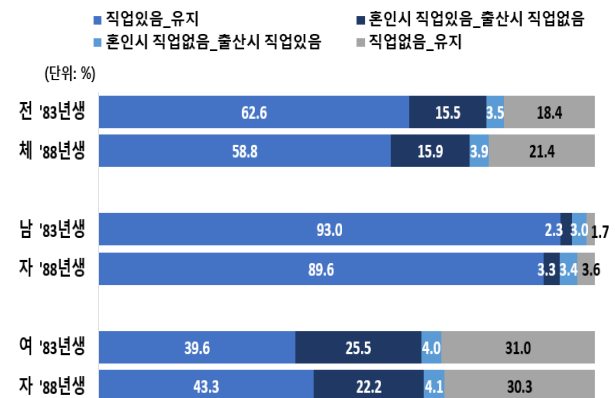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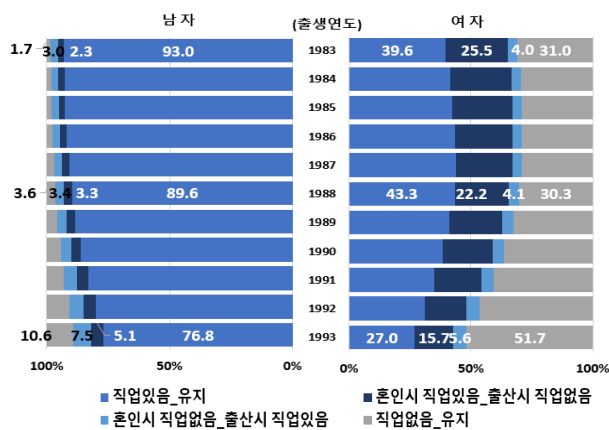
< 30세까지 혼인한 사람 중 첫째아 출산 연령별 누적 비중('83년, '88년) >



□ 이들은 혼인 당시와 첫째아 출산 당시 직업변동이 있었을까?

- '83년생 여자 중 혼인과 출산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중은 39.6%이고, 혼인시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시에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5.5%임.
- '88년생 여자 중 혼인과 출산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중은 43.3%이고, 혼인시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시에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2.2%임.

< 기혼자의 혼인·출산 전후 직업변동('83~'93년생) > < 기혼자의 혼인·출산 전후 직업변동('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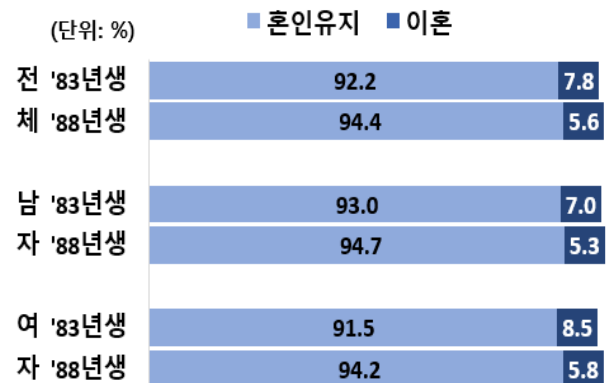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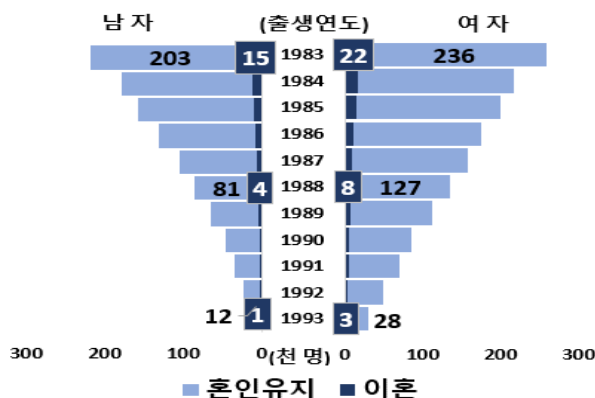


* 혼인 당시 및 첫째아 출산 당시 직업 항목 미상은 분석에서 제외함.

□ 혼인(초혼)한 이들 중 이혼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 초혼 기준, 혼인한 '83년생(47만 6천 명) 중 7.8%가 이혼하였고, 혼인한 '88년생(21만 9천 명) 중 5.6%가 이혼함.
- 혼인한 '83년생 중 남자의 7.0%, 여자의 8.5%가 이혼하였고, 혼인한 '88년생 중 남자의 5.3%, 여자의 5.8%가 이혼함.

< 기혼자의 초혼 기준 이혼 비중('83~'93년생) > < 기혼자의 초혼기준 이혼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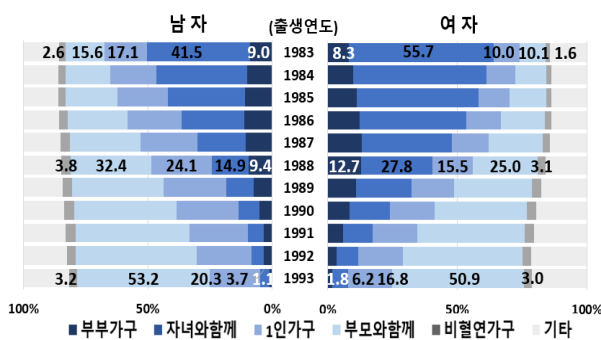
* 혼인 유지에는 사별 포함

사회 · 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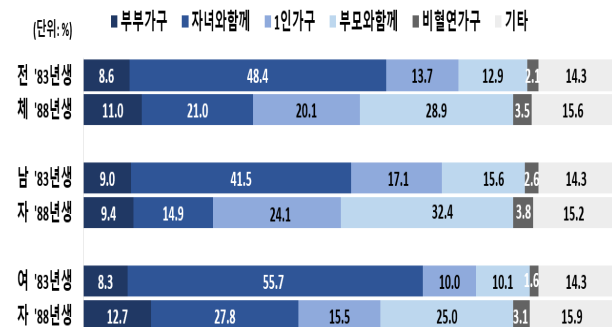
□ 그들은 누구와 살까?

- '83년생은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48.4%)이 가장 높았고, '88년생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28.9%)이 가장 높고,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21.0%), '혼자 사는' 비중(20.1%) 순임.
- '83년생 남녀 모두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88년생 남자는 '부모와 함께'(32.4%), 여자는 '자녀와 함께'(27.8%) 사는 비중이 높았음.

< 성별 세대·가구 유형¹⁾ 비중('83년~'93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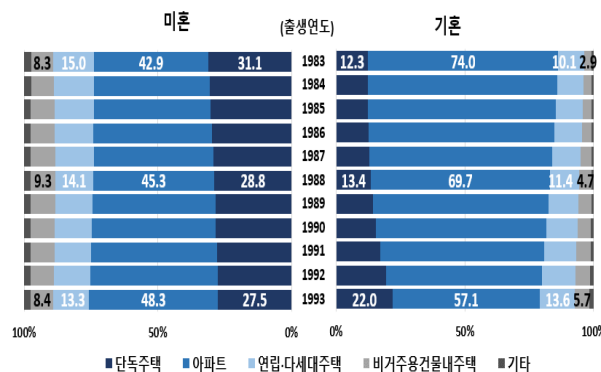
< 성별 세대·가구 유형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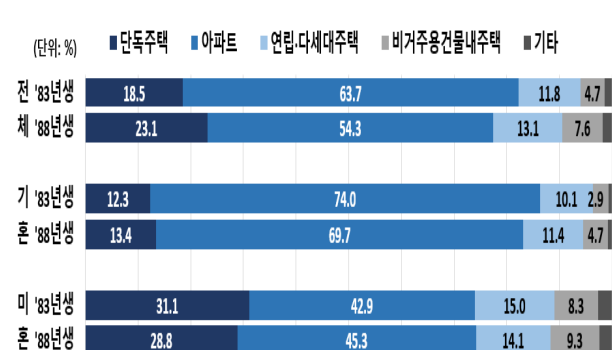
□ 그들은 어떤 거처에서 살까?

- '83년생과 '88년생 모두 아파트에 사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단독주택 비중이 높았음.
- '83년생 기혼자의 74.0%, 미혼자의 42.9%가 아파트에 거주, '88년생 기혼자의 69.7%, 미혼자의 45.3%가 아파트에 거주함.

< 혼인 여부별 거처유형 비중('83년~'93년생) >



< 혼인 여부별 거처유형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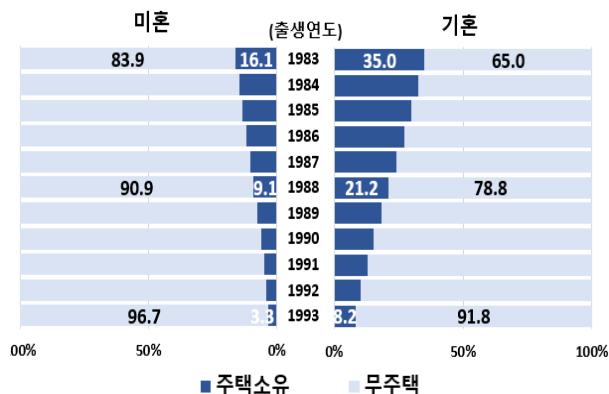
1) 부부가구: 1세대 중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2세대 가구 중 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2세대 가구 중 본인이 부모/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함. 기타는 1세대 가구 중 부부가구 제외, 2세대 가구 중 부모/부 또는 모 + 자녀 가구 제외, 3세대 이상 및 일반 가구가 아닌 가구원 등 포함.

□ 그들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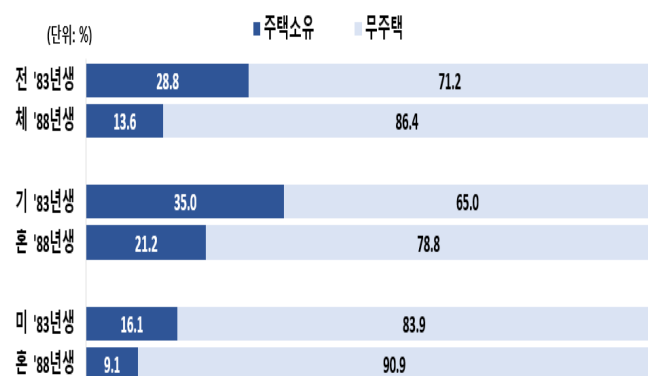
○ '83년생(71만 2천 명) 중 28.8%가 주택을 소유하였고, '88년생(59만 5천 명) 중 13.6%가 주택을 소유함.

- '83년생 기혼자의 35.0%, 미혼자의 16.1%가 주택을 소유하였고, '88년생 기혼자의 21.2%, 미혼자의 9.1%가 주택을 소유함.

< 혼인 여부별 주택소유 비중('83~'93년생) >



< 혼인 여부별 주택소유 비중('83년, '88년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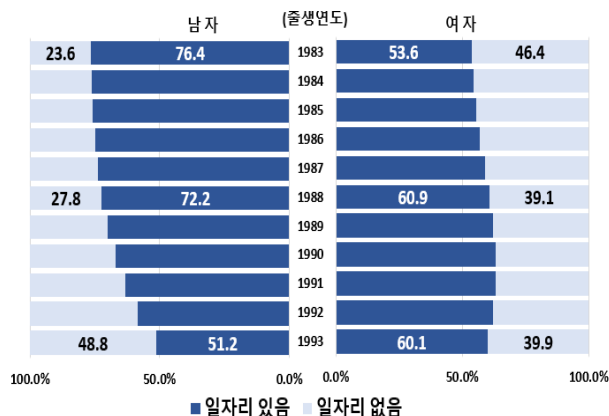


□ 그들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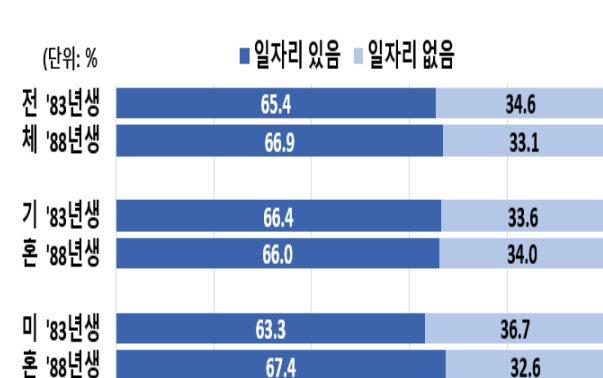
○ '83년생(71만 2천 명) 중 65.4%가 경제활동²⁾을 하고, '88년생(59만 5천 명) 중 66.9%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83년생 기혼자의 66.4%, 미혼자의 63.3%가 경제활동을 하였고, '88년생 기혼자의 66.0%, 미혼자의 67.4%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경제활동 비중('83년~'93년생) >



< 혼인 여부별 경제활동 비중('83년, '88년생) >



2)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림·어업 생산활동 경영인, 무등록사업체 및 4대보험 미가입자 일자리 등은 포함되지 않음

붙임2 인구동태 코호트 DB 개요

□ 인구동태 코호트 DB

- (정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4종의 통계* DB를 출생기준으로 상호 연계한 DB
 - *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자료임
- (대상) 198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출생(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축했으며, 매년 신규 출생 코호트 및 인구동태 사건을 추가할 예정임.

□ 구축 배경

- (이용자 수요 증가) 개별 인구동태통계(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가 1981년 이후 장기간 축적되면서 자료간 연계를 통한 심층분석 이용자 수요 증가
- (환경 변화)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2015년~) 자료를 활용해 인구동태 연계키를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연계 환경^(2018년~)이 마련됨.

□ 구축 방법

- (기초자료) 인구동태통계 DB*와 등록센서스 인구DB**
 - * 출생·혼인·이혼통계 DB는 1981년, 사망통계 DB는 1983년부터 매년 개별로 구축·관리
 - ** 인구총조사가 2015년부터 행정자료기반 등록센서스로 실시, 이후 매년 구축·관리
- (연계 방법) 출생코호트 기준으로 혼인-이혼-출생(산)-사망 DB 등 연계

□ 자료 제공

- (제공 대상) 1983~1993년생 인구동태 코호트
- (제공 방법) SDC 통계데이터센터에서 단계적으로 제공
 - 1단계('21년 말~): 학계, 연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개인
 - 2단계('24년 이후~): 일반 이용자

※ 개인의 생애변동과정을 연계한 자료로, 처음 서비스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공 대상자를 한정한 관찰 기간 필요 [2021년 통계개발원 “인구동태 코호트 자료의 비식별화 및 자료 제공방안 연구” 결과]
- (제공 항목) 출생, 혼인, 자녀출산,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주요 특성 항목 등

통계명	구분	제공 항목
인구총조사	본인	연계키, 출생년월, 성별
출생통계 (자녀출산)	본인	출산시_본인 연령, 최종학력, 직업, 출산시_결혼생활기간 등
	배우자	출산시_배우자 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출생아	출생시_출생년도, 성별, 임신주수, 출생시 체중, 출생지역 등
혼인	본인	혼인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실제결혼년월 등
	배우자	배우자_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이혼	본인	이혼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배우자	이혼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
사망	본인	사망시_연령, 최종학력, 직업, 사망원인, 사망지역 등